

# KIA 김기태 감독이 밝힌 한승혁과 이민우 사용법

한승혁, 오늘 선발 예상... 마지막 등판서 부진했지만 신뢰감 표시  
‘선발 요원’ 이민우, 최근 김운동 기복 피칭에 당분간 불펜서 기용

“이번에도 선발투수로 나선다.” 김기태 KIA 감독이 우완 한승혁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했다. 김감독은 “한승혁은 이번주에도 선발 투수로 나선다. 좋은 볼을 던지고 있다”면서 신뢰감을 표시했다. 한승혁은 24일 한화와의 광주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27일 수원 KT전에 선발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승혁은 선발투수로 2번 마운드에 올랐다. 4월 4일 인천 SK경기에서 4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자 선발투수로 발탁을 받았다. 10일 대전 한화전에서 5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다. 그러나 20일 잠실 두산전에서는 4이닝 6실점했다. 7피안타와 5사사구를 내주며 부진했다.

앞선 2경기에서 보여준 볼을 던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발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김기태 감독은 믿음을 표시했다. 열흘만에 등판해 실전감이 떨어진 측면도 있었다. KT와의 세 번째 등판에서 제구를 해준 것으로 믿고 있다. 김 감독은 우완 이민우도 선발 요원이지만 당분간 불펜에서 기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민우는 개막 선발로테이션에 발령을 받았지만 2경기에서 모두 패했다. 세 번째 경기에서는 1+1로 등판했지만 3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다. 구속이 늘지 않고 제구도 흔들렸다. 최근 불펜에서 달라진 구위를

보였다. 20일 두산전 1이닝 퍼펙트, 21일 두산전 1이닝 퍼펙트 행진을 펼쳤다. 5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구속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제구와 변화구의 예리함도 커졌다. 선발복귀 가능성이 열렸지만 김감독은 “구위 자체가 좋아졌다. 마음가짐도 좋아졌다”면서도 “선발보다는 불펜에서 기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장기적으로는 이민우를 선발투수로 기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팀 사정이 허락하지 않고 있다. 최근 김운동이 기복이 심한 피칭으로 안정감이 있는 우완 불펜투수가 필요하다. 구위가 좋아진 이민우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승혁



이민우

##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 마침내 최다승 사령탑

211승 107무 96패...만 59세 13일 만에 일궈낸 업적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이 K리그 역사를 다시 썼다. 최 감독이 이끄는 전북은 25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K리그 하나은행 K리그 2018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김정남 전 감독과 함께 K리그 통산 210승을 기록 중이던 최 감독은 이날 승리를 추가하며 역대 최다승 사령탑으로 우뚝 섰다. 만 59세 13일 만에 일궈낸 업적이다. 통산 기록은 211승 107무 96패다.

최 감독은 2005년 전북 감독으로 K리그에 뛰어들어 5번이나 정상상을 경험했다.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승 이상을 거뒀다. 전북 선수들은 깔끔한 승리로 스승의 대기록 달성을 도왔다. 전반 20분 아드리야노가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5분 정철이 쐐기를 박았다. 아드리야노는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연승 행진을 7경기로 늘린 전북은 승점 24(8승1패)로 2위 수원 삼성(승점 20·6승2무1패)과의 4점차를 유지했다. 강원은 승점 12(4승5패)로 8위가 됐다. FC서울은 전남 드래곤즈 원정에서 1-2로 패했다. 조영욱의 절묘한 갑아차기로 리드를 잡았고 역전패를 당했다. 1-0으로 앞선 후반 6분 이지남과 후반 14분 유교비에게 연속골을 얻어 맞았다. 서울은 승점 9(2승3무4패)로 12개팀 중 9위에 머물렀다. 시즌 2승째를 신고한 전남은 승점 8(2승2무5패)로 순위를 10위까지 끌어올렸다. 수원 삼성은 안방에서 경남FC를 3-1로 꺾었다. 신에 전세진은 전반 16분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데얀과 김종우가 1골씩을 보냈다. 시즌 초반 무서운 기세를 떨치던 경남은 또 다시 승수쌍가에 실패했다. 4연승 후 5경기째 무승이다. 승점 14(4승2무3패)로 간신히 3위는 유지했다. 제주 유니타드는 후반 17분 오반석의 결승골로 포항 스틸러스의 추격을 1-0으로 잠재웠고 상주 상무는 후반 41분 터진 임재민의 골로 대구FC를 2-1로 제압했다. 울산 현대는 인천 유니타드의 추격을 2-1로 뿌리쳤다.

뉴시스

## 즐라탄 복귀 논란, 신태용 감독은 반갑다

“합류 잡음, 감독 스트레스 받을 것...우리에게 나쁠 것 없어”

한국의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첫 상대인 스웨덴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복귀설로 들쭉거리고 있다.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이브라히모비치가 마음을 바꿔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정작 동료들과 감독의 반응은 뜻밖이지근하다. 이브라히모비치의 언론 플레이에 지친 안 안데르손 감독은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압포까지 놓았다. 신태용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도 ‘즐라탄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브라히모비치의 합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로 흘러나오는 잡음에 대한 반가움이 크다. 25일 러시아 대사관이 마련한 월드컵 D-50 기념 행사장에서 만난 신태용 감독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주 감사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감독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시기에) 선수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브라히모비치가 들어오면 오히려 감독에게 많은 짐을 안길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팀이 와해될 수도 있다고 본다.” 신태용 감독은 이브라히모비치가 실제로 월드컵에 출전해도 우리에게 큰 나쁠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한 방을 갖춘 이브라히모비치의 결정력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길 조직력의 균열을 파고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웨덴은 즐라탄 없이 유럽 예선을 잘 치렀다. 수비 조직력과 피지컬에서 앞서 월드컵에 진출한 팀”이라고 평가한 신태용 감독은 “한 명이 덜 뛰면 나머지 9명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더 뛰게 된다. 그러면 조직력에 허점이 생길 것이다. 80분이 지나 체력이 고갈되면 허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 내부에도 이런 주장이 존재한다. 골 키 퍼 칼 요한손은 “이브라히모비치는 개인 플레이를 중요시하는 선수다. 그가 대표팀의 구성원이 되면 스웨덴의 플레이어는 그를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스웨덴은 개인 플레이보다 조직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데르손 감독과 이브라히모비치의 기싸움은 최종 엔트리 발표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말이 도출되든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는 게 현재 신태용 감독의 생각이다.

뉴시스

## 추신수, 무안타 불넷 출루...타율 0.242 ↓

오클랜드전 선발 출전...텍사스, 4-2역전승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불넷가 상대 실책으로 두 차례 1루를 밟았지만 안타를 때려내진 못했다. 추신수는 2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무안타 1불넷 2삼진을 기록했다.

전날 밀티히트와 함께 세 차례 출루에 성공했던 추신수는 타격감을 이어가지 못했다. 타율은 종전 0.250에서 0.242(99타수 24안타)로 떨어졌다. 1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불넷을 치러 출루한 뒤 상대 실책으로 2루까지 갔지만 후속타자가 삼진으로 물러나며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0-2로 뒤진 3회말 1사 1루 두 번째 타석에서는 2루수 실책으로 1루로 살아 나갔지만 역시 득점에는 실패했다. 5회에는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풀카운트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7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역시 풀카운트에서 방망이를 휘둘리며 아웃했다. 타석에서는 침묵했지만 수비에서는 1회초 2사 1루에서 크리스 데이비스의 안타성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내는 등 무리 없이 소화했다. 텍사스는 4-2 역전승하며 2연패에서 벗어났다. 9승 17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다.

## ‘테임즈 2개월 부상’ 최지만 빅리그 복귀 가능성

밀워키 단장 “좋은 1루수 많아...기회 갈 것”

에릭 테임즈(32·밀워키 브루어스)가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불가피해지면서 최지만(27)에게 기회가 돌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최 감독은 26일(한국시간) 좌측 엄지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한 테임즈를 10일째 부상자 명단(DL)에 올렸다. 테임즈는 전날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에서 8회 수비 도중 내야땅볼을 처리하기 위해 몸을 날리다 엄지를 다쳤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인대가 찢어졌다. 27일 재검진을 통해 수술 여부가 결정된다. 일단 10일째 DL이지만 재검진 결과에 따라 수술여부와 복귀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수술을 하게 되면 6주에서 최장 2개월까지 경기 출전이 어렵다. 2014년 같은 부상을 당한 브라이스 하퍼(워싱턴 내셔널스)는 복귀까지 두 달이 걸렸다. 지난해 마이크 트라웃(LA 에인절스)은 6주 뒤 돌아왔다. 올 시즌 밀워키 주전 1루수로 나선 최지만은 22경기에 출전해 타율은 0.250에 그치고 있지만 팀 내 최다인 7홈런을 터뜨리며 거

포로 활약 중이다.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해지면서 그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밀워키는 26일 테임즈의 백업인 해수스 아퀼라에게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해수스는 올 시즌 제한된 기회에서도 타율 0.429 1홈런 5타점 OPS 1.116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좌익수 라이언 브론도 스프링 트레이닝 때부터 1루 겸업을 했던 상황이라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이와 함께 개막 로스터에 올랐다가 골바로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최지만에게도 호재가 될 것이라 분석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티븐스 밀워키 단장은 테임즈의 부상 공백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1루 포지션 선수들이 많다. 타격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테임즈가 빠지지만 나머지 다른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티븐스 단장은 해수스, 브론과 함께 트리플A에서 뛰고 있는 최지만을 언급했다. 최지만은 시범경기 맵터를 휘두



르며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개막 로스터에 들었지만 단 한 경기에 대타로 출전했을 뿐 이튿날 마이너행을 통보 받았다. 시범경기 맵활약에도 불구하고 포지션 정리 차원에서 마이너리그에 머물고 있는 만큼 테임즈의 공백 기간 동안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리플A 콜로라도 스프링스 스카이스에서 뛰고 있는 최지만은 16경기에서 타율 0.235(51타수 12안타) 2루타 6개 10타점 OPS 0.702를 기록 중이다.

뉴시스

## 영 언론 “에버턴, 기성용 영입 관심”

이번 시즌 종료 후 자유의 몸이 되는 기성용(스완지 시티)의 주가가 나날이 치솟고 있다. 이번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턴 이적설이 흘러나왔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6일(한국시간) “에버턴이 스완지 시티 미드필더 기성용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 소식통의 말을 인

용, 기성용이 올 여름 많은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성용과 스완지 시티의 계약은 2017~2018시즌까지다. 기량이 검증됐고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뉴시스